

東光 - 1931. 11. 01

革命詩人 하이네

理性과 浪漫의 二元苦와 哲學

申南澈

그의 詩集 「北海」에서 「疑問」이라는 詩 하나를 집어내보자.

바다가에 쓸쓸하고 킁킁한 바다가에
젊은이가 혼자 서있다.
가슴은 슬픔에 차고 머리는 懷疑에 가득한데
그는 애달게 입을 열어 滄波에 물었다.
「아 生의 수수끼기를 풀라
그 애답은 예로부터의 수수끼기를」
...
...

滄波는 끝없이 출렁거리고
바람은 거칠고 구름은 허터진다
별들은 無心히 찬한울에 빛나는데
어리석은 者는 그 對答을 기다리고 있다.

하이네는 懷疑의 深淵에서 當時의 一般的 雰圍氣이든 「世界苦」를 戀情과 哀愁로 지레질하는 듯이 보이다가도 어느틈에 社會와 人間에 對한 決定的 態度를 痛快하게 護笑의 으로 表明하는 것이었다. 그의 豊饒한 詩想에 오는 大洋의 怒濤같은 우렁찬 反抗은 猶太人이라는 民族的 蔑視와 教授階級의 排他的 貴族의 生活에 對한 間斷없는 嘲弄과 否定으로 結果하였다. 그러나 그 反面에 그는 또한 教授의 地位를 얻으려고 齷齪하였고 「놀데르네」에서 靜養하고 있을 때에는 Von Heine 라고 하여 自身이 貴族이라 것을 알리려고 하였다. (獨逸에서는 姓에 Von 이 붙으면 貴族임을 表示하는 것이다) 그에 게 있어서의 一見矛盾되고 反撥하는 두 개의 方向이 끝끝내 그의 悲劇과 그

의 안타가운 失戀을 장만하는 것이었다. 바다에 對한 韻律的 愛着이 一種의 悲壯美를 內包한 敍情에서 光下의 砂丘를 거닐며 잊히지 않는 愛人「아말리」를 생각하다가도 어느듯 그의 頭腦는 理性의 港口로 배질하는 것이었다. 腦裏에 縱橫으로 交叉하는 無碍한 構想力은 逼迫한 生活과 支配階級의 言論 強壓을 明朗한 自由로운 새 世代에 淨火하려하였다.

그에게 있어서의 이 두 가지 理念은 그의 外部生活이 困窮하였고 그의 大學生活이 義俠的 追放도 겪었듯이 만치 革命的 氣概에 浸潤되었었고 反面에 理想을 追求하는 觀照的 情調도 지지 않게 強烈하였었다. 理性은 그에게서 그 適切하고 切實한 形態를 지버낼 수 잇는 世界苦를 二月革命과 七月革命에서 歡喜와 信念의 다음 時代에서 스스로 慰安시키는 것이었고, 浪漫的 情緒는 웰링과 술레겔을 中心하여 洄卷을 틀고 잇는 歷史的 社會的 貴童女「狂風怒濤」를 爆發하고도 남을 熱情의 胸裡에 烙印하여 病苦(그에게는 甚한 頭痛의 持病이 잇었고 晩年에는 眼疾과 半身不隨로 終身하고 말었다) 와 사라진 「아말리」 姊妹에 對한 哀想을 火焰같이 이리 집어 보는 것이었다.

지금은 理性을부러서
모든 愚鈍을 내버릴 때다
나는 오래동안 喜劇俳優로서
너와 같이 喜劇을 하여 왔다.

華麗한 背景은
너무 로맨틱한 모양으로 그려졌었다
나의 騎士服은 金色으로 빛났고
나는 너무 精美한 感情을 느꼈다.

인제 나는 謹慎하여
미친 饒舌을 내버리련다.
그러나 내가 喜劇을 演할 때보다도
나는 自身の 不幸을 느끼는 것이다.

아 心腸은 無意識하게
무엇을 내가 느꼈나하고 말한다.
나는 죽음과 같이 나의 가슴에서
힘없는 擊劔을 하였든 것이다.

理性和 浪漫的 二元苦痛에서 自身の 處身할 곳을 두루 살피어 보았다. 教授의 地位를 企望도하여 보았고 「피테」를 訪問하여 무슨새 衝動이나 얻을가 하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베스말크의 統一的 血鐵帝國이 바야흐로 完成하려는 反動獨逸의 諸支配的 機構가 迫害와 敵視의 날카로운 이빨을 악물고 잇을뿐이었다. 自由民權의 思潮가 七月十四日의 「빠스튜」 攻擊에서 그것의 壯年の 고비를 넘어서자 十九世前半의 社會的 諸形態와 그 우에 依存된 多岐한 觀念形態는 革命의 餘波를 받아 바야흐로 一大轉機 우에 서게 되었다. 新興뿌르조아지의 向自體로서의 階級形成의 諸過程은 따라서 無産階級の 革命運動을 挑發시키었고 「칸트」에게서 所謂 「啓蒙 되어졌다는 時代」 (이것은 觀念哲學者들의 어떤 特殊人物을 中心으로한 歷史哲學의 記述方式이다) 는 佛蘭西唯物論 —그것은 佛蘭西社會學의 母胎이었고 맑스도 그것에 影響을 받은 것은 다아는 바이다—에 繼起한 辨證法的 社會觀에서 歷史的 社會的 事物現象이 政黨한 學問的 方法을 얻은 것이었다. 이러한 때를 當하여 「하이네」의 목은 世界の 廢棄와 그것에 代置될 새로운 世界에 이 憧憬이 비록 科學的 認識下에 意識的 行動으로 志向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의 詩人으로서의 殉教的 熱情과 被壓迫階級の 一人으로서의 世界觀은 무엇보다도 私有財産制度의 廢棄를 企望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든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그의 詩人的 情調에서 북바치는 가슴을 터놓은데에 지나지 안는다고 하더라도 正히 그에게는 차돌 같은 理性의 여무진 理論을 가질만한 다른 思惟로서 의 方向도 잇었던 것이다.

財産이라는것을 自然은
만들지 안었다. 아무것도 없이
몸에 호주머니를 부치지 않고
우리는 모다世上에 태난고로

人間生活은 爲先 物質的 條件의 改善과 變革에서 그것의 救濟를 實現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었다. 理想主義자들의 口吻을 본따서 自我의 改造나 人間性의 善導니하는것은 모다 어렵없는 잠고대의 헛소리다. 百千의 祈禱보다도, 한주먹의 빵이, 困勞한 身體에 生氣를 준다. 靈의 過剩에서 橫遍十方과 豎窮三際를 아무리 觀念한다 하더라도 饑餓의 窮乏에서 增大하는 失業群과 經濟的 諸機構를 正道에로 도리킬 힘은 物質의 福音이 아니면 아니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物의힘」에 對한 義的 價値付與가 不可

避이엇든 것이다. 이 點에 그에게는 틀림없이 近代의 唯物的 社會思想이 潛流하고 잇었다. 이 近代의 唯物的 社會思想은 19世紀의 解放運動과 分離하지 못할 關聯을 가지고 잇는 것이니, 그의 「아타·트롤」이라는 敘事詩의 主人公인 곰(熊) 「앗타·트롤」이

一致다 一致만이

時代의 第一가는 要求다. 한 사람 한 사람만으로는

우리는 奴隸가 된다. 허니 一致하면

우리는 暴君을 해낼 수 잇다.

一致다! 一致다! 우리가 익이면

더러운 獨占의 支配는 너머진다.

우리는

動物의 正義國을 세우는 것이다.

이 熱情的 詩想에서 그는 얼마나 舊支配에 對한 新興勢力의 革命的 行動에 對하여 感激과 禮讚을 呈하였든가! 一八三〇年の 革命은 그가 그같이 사랑하였어도 끝끝내 그를 虐待하고 말은 故國 獨逸에서 失意의 日月을 怏怏히 지내든 「하이네」에게는 큰 衝動을 준 것이었다. 巴里로! 그것은 그의 다 시없는 熱情的 憧憬이었다. 巴里! 巴里! 幻滅과 敵意의 翻弄가운데서 新興하는 새빨간 大衆의 서울巴里를 꿈꾸는 그의 조바슴[조바심]나는 感激!

“나는 아름다운 祖國을 가졌 섰다.”

고하며 이 背反과 改宗의 詩人은 怨恨의 하소연을 하였고.

“아 獨逸아 나의 먼愛人아

내가 너를 생각할 때 나는 거이 우는 것이다.”

하며 꿈을 가진 獨逸을 陽氣한 佛蘭西보다도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밉쌀스러운 權威者들의 迫害와 그의 悲劇的 牧歌는, 더구나 古典과 浪漫에 反逆하고 解放運動의 現實的 關聯에서 찾아 보려든 理性主義的 志向은 그를 矛盾하는 두 가지 方向의 苦痛에서 轉輾케하는 것이 잇으니 그가 새 轉機와 새 營爲를 얻으려 巴里를 잊지 못하는 것은 緣由잇는 일이었다.

自由는 새 宗教다. 巴里는 새 「예루살렘」이고 라인江은 自由의 聖地를 俗人의 나라로부터 나누는 烏丹江이다. 이 그의 새 무엇을 希求하는 熱望은 設使 그것이 明礎한 行動에 까지 分化하여 나오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리하여 그가 晩年에는 巴리에 와 잇는 獨逸亡命客들 사이에서 指導를 받기도 하였지마는 그에게 있어서의 뒤숭숭하고 서로 反撥하는 二元癖는 그에게 잇어

서는 自然한 것이었다. 理性으로서는 歷史와 社會의 必然的 運動을 肯定하는 社會革命의 矢驅였지만 浪漫으로서는 現實을 떠나고 幻夢의 世界에서 絶緣하지 못하였다. 世界 푸로레타리아 文學運動의 最初의 宣言者이었던 「하이네」는 (푸란쓰·메링그) 他方으로 獨逸의 古典과 浪漫을 結果짓고 새로운 世代로 그 遺産을 傳受하는 轉形期의 頂點에 서있는 類例드문 人物이었다. (續)